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유현희 · 이창식\*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충남도의 여성결혼이민자 58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는 기술통계 분석,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들의 우울에 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희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과 부적의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희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 증진을 통하여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희망, 매개효과

\* 교신저자(이창식) 전화 : 041-660-1246 e-mail: [cs1@hanseo.ac.kr](mailto:cs1@hanseo.ac.kr)  
356-706 충남 서산시 해미면 한서1로 46 한서대학교 인문사회관 604호

## 1. 서론

한국의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4.4%에서 2007년 10.5%로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2007년의 17,430명에 비해 11.8% 증가한 148,498명으로 증가하였다(법무부, 2012).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이혼은 지난 2004년 한국 전체 이혼 138,932건 중 1.1%인 1,567건 이었지만 계속 증가하여 2011년 한국 전체 이혼 114,300건 중 11,500건으로 10.1%였다(통계청, 2012).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체류, 한국사회 부적응, 외국인 폭력 등 다문화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한국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하선영, 2012; 박지영, 2012).

한편 결혼을 통하여 입국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 문화적응을 위한 준비기간도 없이 가족을 구성하고 자녀를 출산하면서 문화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남편, 그 가족 및 지역사회주민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갈등이 곧 스트레스로 변화된다(Berry, 1991). 또한 차별과 빈곤, 한국문화에 대한 낮은 적응력 등으로 인해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그 자녀들의 경우, 위의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의 어려움(한건수, 2006; 이영주, 2008), 향수병과 문화충격(조정희, 2010), 가정폭력(성정희, 2008; 양옥경, 김연수, 2007), 가사노동의 전담자(한국염, 2006), 차별과 편견(한건수, 2006), 경제적 스트레스(신경애, 2009) 등의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심리적인 반응에 의하여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말하는데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새로운 환경과 접촉하면서 나타나는 신

체적, 생물학적,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를 지칭한다 (Berry, 2006). 이 과정에서 개인은 두 가지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첫째, 문화적응에 영향을 주는 지역사회 특성에 따른 모국문화 유지수준에 관한 행동변화이다. 즉, 이민자가 이주한 사회가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는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Berry(2005)는 이 과정을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로 구분하였다. 둘째, 사회변화에 따른 혼란과 관련이 있으며, 문제가 되는 이상한 행동적 반응을 포함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acculturative stress)이다. 즉,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문화적응과정에서 다른 문화와 접촉할 때 개인과 집단이 경험하는 고통과 역기능으로 우울, 분노, 소외감, 주변화된 느낌이나 정체성 혼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희망을 안고 다른 국가로의 이주를 결정하게 되는데, 국제적인 이주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흔(trauma)과 정착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이민자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Berry, Poortinga, Segall, & Dasen, 2002), 문화적으로 낯선 환경에서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울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Hoschl et al., 2008).

우울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사회적 통합을 어렵게 하고 개인에게 위기를 가져오게 한다고 하였다(Karen & Louk, 1996: 131).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배우자보다 우울증후군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정기선 & 한지은, 2009), 만성적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어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를 적절히 해소할 기회를 갖기 어려워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권구은 & 박근우, 2007).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은 한국가정과 사회의 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이차적인 문제와 가정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재가 시급한 실정이다. 정신의학적 개념에서 우울증(depression)이란, 기분 장애의 하위 개념 중 하나로 기분에서의 어려움을 일차적인 특질로 갖는다. 또한 우울은 부정적인 정서상태로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불안이나 갈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변화, 근심, 무력감, 고독감, 무가치함을 나타내는 정서상태라고 할 수 있다(박형인, 2004). 한국은 전체 우울증환자의 78.8%가 여성으로(국립보건원, 2009), 이는 한국의 기혼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것이며, 여성결혼이민자들도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으로 예측된다(이정희, 2013). 사람은 누구나 생애 기간 중 한두번 정도는 우울을 경험하고(박경, 2003), 특히 여성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타 문화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경우 문화적 상황의 변화와 이에 대한 적응 과정은 개인에게 강도 높은 스트레스를 야기하기도 하며, 문화적 상황의 변화가 개인의 대처능력을 초과할 때 임상적 우울증, 불안증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rry, 1997).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40.6%가 우울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숙자 등, 2009),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우울을 경험하지 않도록 대처양식과 함께 사회적 지지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간주되며(Cohen & Wills, 1985), 대처양식에 따라 취약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Wills, McNamara, Vaccaro, & Hirky, 1996).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은 이주로 인한 특별한 대상의 상실, 사회적지지 등과 같은 중요한 관계상실로 인해 더욱 더 고립감이나 슬픔, 후회의 감정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Hovey와 King(1996)은 결혼이주여성들은 우울 및 불안수준이 매우 높으며 문화적응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하였다(Berry,

1997).

끝으로 희망은 인간 삶의 본질 그 자체이며,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는 과정으로(김달숙, 1992)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성장과 삶의 의미를 찾게 한다. 또한 학업성취, 운동성과, 정서적 건강, 질병에 적응하는 것, 기타 어려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Snyder(1994)와 같은 희망론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Snyder 등(1991)은 희망을 목표 지향성으로 보고 주도와 경로사고의 합을 통해서 희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은 이민의 동기이며, 이민 후 안정적인 정착과 아울러 삶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정진환 & 이창식, 2012). 또한 이러한 희망은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이승중, 1996; Snyder, Holleran, & Irving, 1991; Chang, & Desimone, 2001; Affleck, & Tennen, 1996; 이희경, 2007; 박수정, 1992). 즉, 희망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스트레스에 잘 적응하는데, 이 때 희망은 처한 상황이나 개인이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Snyder, 2000). 또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겨도 삶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장애로 지각하기 때문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Snyder, 1994).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고, 희망의 증진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지영 & 이창식, 2012). 그리고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희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고 희망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개인적 경험에 대해

수용을 잘하였으며 희망이 부적 정서를 감소시키며 심리적 안녕감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였다(Affleck, & Tennen, 1996). 특히 여성결혼이민자의 차별감, 향수병, 적대감, 두려움, 문화충격, 죄책감과 긍정적 및 부정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박지영 & 이창식, 2012). 즉, 희망은 긍정적 복지의 증가만을 위한 매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복지를 감소시키는 매개 역할도 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 희망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Lee, Park, & Lee, 2013).

이에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희망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이 매개하는가?를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의 4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센터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1,000부를 배포하였고, 그 중 불성실하거나 회수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58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24.1%, 중국 한족 17.9%, 중국 조선족 16.2% 순이었다. 연령은 30대가 43.1%로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

40.0%였다. 학력은 고졸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대졸 이상, 중졸 순이었다. 거주지는 대도시보다 농촌이 다소 많았으며, 종교는 무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교, 천주교 순이었다.

〈표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출신국가	중국(조선족)	94	16.2
	중국(한족, 기타민족)	104	17.9
	베트남	181	31.2
	필리핀	140	24.1
	일본	16	2.8
	대만	9	1.6
	몽골	5	.9
	태국	4	.7
	캄보디아	8	1.4
	우즈베키스탄	5	.9
	기타	14	2.4
	합계	580	100.0
연령	20대	232	40.0
	30대	250	43.1
	40대	81	14.0
	50대 이상	17	2.9
	합계	580	100.0
학력	초졸 또는 이하	32	5.5
	중졸	145	25.0
	고졸	232	40.1
	전문대졸 이상	170	29.4
	합계	579	100.0
거주지	도시(대도시,중소도시)	249	43.3
	농촌(읍,면,리)	326	56.7
	합계	575	100.0

구분		빈도	%
종교	기독교	80	13.9
	천주교	89	15.4
	불교	159	27.6
	유교	20	3.5
	기타	47	8.1
	무교	182	31.5
	합계	577	100.0

## 2.2. 조사도구

### 2.2.1.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Sandhu와 Asrabadi(1994)가 개발한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를 번안하여 유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측정한 이승중(1996)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편견이나 차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각된 차별감, 모국의 집이나 사람들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느낌 등을 나타내는 지각된 미워함, 개인적인 안전문제를 포함한 두려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데 불편함 등을 나타내는 문화적 충격, 모국의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온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을 나타내는 죄책감, 그리고 언어적 차이나 열등감, 사회적 고립 등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지각된 차별감 Cronbach's  $\alpha = .884$ , 향수병 Cronbach's  $\alpha = .708$ , 지각된 적대감 Cronbach's  $\alpha = .855$ , 두려움 Cronbach's  $\alpha = .643$ , 문화충격 Cronbach's  $\alpha = .638$ , 죄책감 Cronbach's  $\alpha = .692$ , 기타 Cronbach's  $\alpha = .905$ 으로  $\alpha$  값이 모두 .6을 상회하여 적

합한 수준이었다.

### 2.2.2. 우울

본 연구에서 사용한 Beck's Depression Inventory-II)는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의미하는 우울을 측정하는 것으로 Beck, Steer와 Brown(1996)이 개발한 척도이다. 체중감소, 신체적 집착 항목을 제거하고, 정신운동성 초조, 무가치감, 에너지 감소, 집중력 저하 항목이 새로 포함되었고, 수면과 식욕 항목에서 저하와 증가를 모두 측정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대해 오늘을 포함한 지난 2주간을 가장 적합하게 설명하는 1개의 질문을 선택하게 되며, 자신이 느낀 것을 최저 0점에서 최고 69점으로 총 23문항, 4점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지각된 인지적 우울 Cronbach's  $\alpha = .873$ , 정서적 우울 Cronbach's  $\alpha = .823$ , 생리적 우울 Cronbach's  $\alpha = .655$ 을 적합한 수준이었다.

### 2.2.3. 희망

희망을 측정하기 위해서 Snyder 등(1991)의 희망척도를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2008)가 타당화한 한국판 희망척도(K-DH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주도사고 Cronbach's  $\alpha = .733$ , 경로사고 Cronbach's  $\alpha = .611$ 이었다.

## 2.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빈도 및 상관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1.0 프로

그램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위하여 AMO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도 검증을 위해 Sobel's test(Sobel, 1982)를 활용하였다.

### 3. 연구결과

#### 1.1. 변인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및 왜도와 첨도는 <표 2>와 같다. 변인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하위영역과 우울의 하위영역 간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과 희망의 각 하위영역과는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상관계수의 절대값을 볼 때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간 효과크기(effect size)( $r=.193, p<.01 \sim r=.859, p<.01$ )가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과 희망 간 효과크기( $(r=-.085, p<.05 \sim r=-.285, p<.01)$ )보다 높았다(Cohen, 1992).

빈도분석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향수병이 평균 3.09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충격 2.7195점이었으며 전반적으로 향수병을 제외하고는 중간점수보다 낮았다. 그리고 우울은 생리적 우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지적 우울, 정서적 우울 순으로 높았다. 희망은 주도사고와 경로사고 모두 중간점수보다 높았다.

정규분포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왜도의 절대값이 3보다 높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7을 넘는 값이 없어 본 연구의 각 변수들이 정규분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표 2〉 전체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574**	1										
3	.859**	.524**	1									
4	.726**	.492**	.705**	1								
5	.739**	.612**	.713**	.645**	1							
6	.676**	.547**	.697**	.638**	.629**	1						
7	.890**	.628**	.853**	.738**	.748**	.728**	1					
8	.376**	.277**	.385**	.338**	.349**	.307**	.417**	1				
9	.287**	.255**	.314**	.300**	.304**	.299**	.360**	.745**	1			
10	.290**	.269**	.291**	.279**	.274**	.193**	.342**	.624**	.690**	1		
11	-.150**	-.007	-.103*	-.124**	-.144**	-.145**	-.166**	-.285**	-.232**	-.204**	1	
12	-.092*	-.085*	-.077	-.111**	-.129**	-.070	-.141**	-.268**	-.291**	-.219**	.727**	1
평균	2.589	3.092	2.497	2.360	2.720	2.347	2.596	3.861	3.636	4.387	3.574	3.523
표준 편차	.741	.778	.807	.842	.783	.907	.727	4.518	4.018	3.316	.641	.657
왜도	.292	-.105	.449	.538	.130	.562	.326	1.280	1.311	.600	-.319	-.041
첨도	.283	-.340	.158	.237	-.264	.071	.229	1.040	1.404	-.084	.125	-.257

\*p<.05, \*\*p<.01

1. 지각된차별감, 2. 향수병, 3. 지각된적대감, 4. 두려움, 5. 문화충격, 6. 죄책감, 7. 기타, 8. 인지적 우울, 9. 정서적 우울, 10. 생리적 우울, 11. 주도사고, 12. 경로사고

## 2.2. 연구모형 검증

여성결혼이민자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희망 그리고 우울에 대한 부분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완전매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고 모형

의 비교를 통하여 간명한 최적의 모형을 확인하였다.

먼저 부분매개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수정지수(MI, Modification indices)를 통해 일부 수정하였다. 수정지수 값이 10(Fassinger, 1987)을 초과하는 오차변량 중에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오차항들 간 공분산 경로로 연결하여 수정하였다. 그 결과 8개의 측정오차변량(정서적 우울과 지각된 차별감, 생리적 우울과 죄책감, 정서적 우울과 주도사고, 주도사고와 향수병, 주도사고와 죄책감, 죄책감과 차별감, 문화충격과 향수병, 향수병과 적대감)을 수정지수에 대응하는 특정수로 자유화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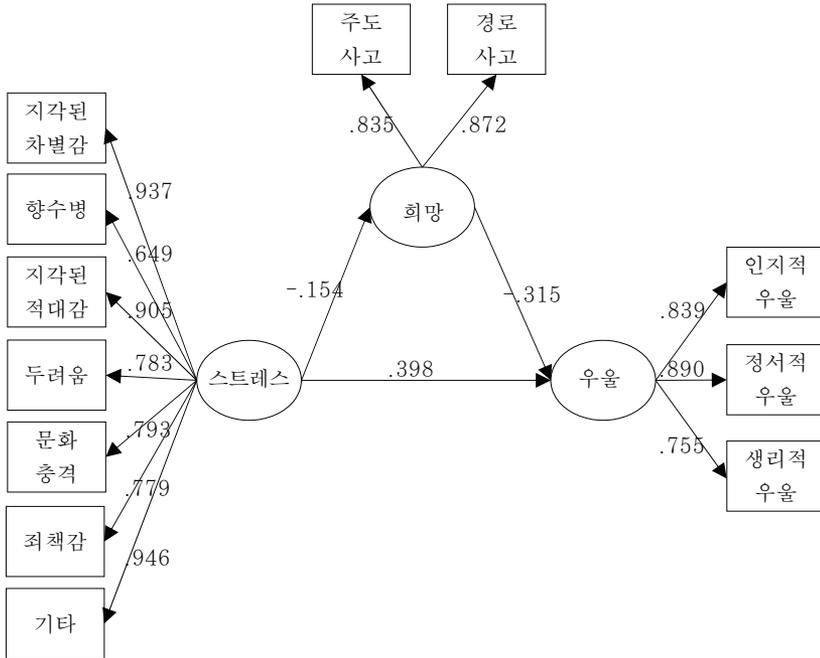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을 비교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표 3>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 값은 자유도 43에서 69.538로 유의미하지 않아 적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TLI는 .992, CFI는 .995, RMSEA도 .033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 완전매개모형은 자유도 44에서  $\chi^2$ 값은 158.117로 유의미하지 않아 적합도가 떨어졌고, TLI는 .967, CFI는 .978, RMSEA는 .067으로 좋은 적합도를 보여,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도 양호하였다. 그러나 부분매개모형은 자유도가 43으로 완전매개모형의 자유도보다 낮아 모형의 간명성이 높고(홍세희, 2000), TLI와 CFI가 적합도 수준인 .9를 모두 초과하였고, 완전매개모형의 수준보다 높았으며, RMSEA도 적합도 수준인 .05(Hu & Bentler, 1995; 홍세희, 2000)보다 낮고 완전매개모형의 값보다 낮아 모형 적합도가 더 양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완전매개모형보다는 부분매개모형을 선택하였다.

〈표 3〉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결과

	$\chi^2$	df	TLI	CFI	RMSEA (Lo 90. Hi 90)
부분매개모형	69.538**	43	.992	.995	.033 (.017 - .046)
완전매개모형	158.117***	44	.967	.978	.067 (.056 - .078)

\*\*\*p< .001

부분매개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과 표준화 계수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 1〉 부분매개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형

잠재변인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희망의 직접효과는  $\beta = -.154(p < .001)$  나타나 부적 관계를 보인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은  $\beta = .398(p < .001)$ 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희망은 낮고 우울은 높은 것을 의미하였다. 다음으로 희망과 우울의 직접효과는  $\beta = -.315(p < .001)$ 로 부적관계를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표 4> 부분매개모형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및 총효과

변인 간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 희망	-.154***	-	-.154
문화적응 스트레스 → 우울	.398***	.049**	.446
희망 → 우울	-.315***	-	-.315

\*\*p<.01, \*\*\*p<.00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서 희망이 부분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는 Sobel's test를 실시하였다(Sobel, 1982). 그 결과  $z=2.9695(p < .01)$ 으로 임계치인  $Z=1.96$ 보다 높아 유의미하였다. 즉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희망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beta = .398$  ( $p < .001$ )로 다른 변인간의 값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문화적으로 낮은 환경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심각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Hoschl et al., 2008, Berry, Pooritinga, Segall, & Dasen, 2002)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특히, 우울이 자살 등 심각한 행동적 문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큰 희망을 갖고 한국에 결혼 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문화적응 스트레스 중 향수병이 가장 높은데 이를 위해서는 5년 단위로 정기적인 모국방문이나 반대로 모국 가족의 한국 방문도 바람직하다. 또한 통신매체를 통한 모국 가족과의 자유로운 연락도 여건이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희망의 직접효과는  $\beta = -.154$  ( $p < .001$ )로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희망이 높은 사람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잘 적응하는데, 이 때 희망은 처한 상황이나 개인이 소유한 힘, 그리고 나약함에 관계없이 긍정적인 결과를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경험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Snyder, 2000). 따라서 문화적응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없는 상황일 때 희망의 증진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희망과 우울은 직접효과는  $\beta = -.315$  ( $p < .001$ )로 부적관계를

보였다. 즉, 희망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eta = .049(z=2.9695, p<.01)$ ),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와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가 있으며, 희망의 증진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삶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박지영 & 이창식, 2012)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이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목표를 수행하는데 장애가 생겨도 삶에는 난관이 있기 마련이라고 지각하는 반면 희망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것을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장애로 지각하기 때문으로도 간주할 수 있다(Snyder, 1994).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정해진 기간 동안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간주하더라도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희망을 증진시킨다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희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희망의 하위영역인 주도사고와 경로사고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유용하다. 즉,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pathway thinking)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 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사고(agency thinking)로 구성되므로 여성결혼이민자로 하여금 도달 가능한 삶의 목표 설정은 물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차원에서 지원과 대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이들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희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 부적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희망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먼저 본 연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희망의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중요한 변인인 우울을 심도 있게 분석하지 않았다. 다음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의 정도와 이의 해소 대책에 초점을 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첫 번째와 같은 관점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분석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희망이 이민자들에게 중요한 변인임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희망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 초기단계이다.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국립보건원. (2009). <http://www.nih.go.kr/>
- 김달숙. (1992). 희망의 간호학적 이론구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구영, & 박근우.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라남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사회연구*, 14(2), 187-219.
- 박경. (2003). 부정적인 생활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문제가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8(3), 581-593.
- 박수정. (1992). 중년기 부인의 사회관계망과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 (2012).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부양동기 및 관계의 질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160-181.
- 박지영, & 이창식. (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대처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서 희망의 매개효과. *한국디지털정책학회지*, 10(11), 665-672.
- 박형인. (2004). 근로자가 지각한 우울,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지가 작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 (2012). 법무부, 다문화 사회통합 ABT대학으로 20개 대학 지정. 법무부 사회통합팀 2008년 5월 23일 보도자료, 통계자료.
- 소은덕. (2006).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정희. (2008). 여성결혼이민자 현황과 사회적 지지 및 우울증에 관한 연구-포항시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경애.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숙자, & 김정아, 김성남, 최혜영, 박찬선, & 단현주. (2009). 도시와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건강개념, 건강상태와 보건의료이용에 관한 연구. 건강증진연구사업보고서.
- 양옥경, & 김연수. (2007). 서울거주 여성결혼이민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79-110.

- 이승중. (1996).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8).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분 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79-101.
- 이정희.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지지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경. (2007).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 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 조정희. (20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충남지역거주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환, & 이창식. (2011). 농촌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거리감과 관련변인. *농촌지도와 개발*, 18(3), 75-99.
- 정기선, & 한지은. (2009). 국제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정신건강. *한국인구학*, 32(2), 87-114.
- 최유희, & 이희경, &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1-16.
- 통계청. (1991-2012).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각년도. <http://www.kostat.go.kr>
- 하선영. (2012). 김혜시 결혼여성이민자의 결혼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건수.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0), 195-243.
- 한국염. (2006). 국제결혼, 희망과 절망의 뒀안길에서. *중등우리교육*, 200, 10-176.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Affleck, G. & Tennen, H. (1996). Constructing benefits from adversity: Adaptational significance and dispositional underpinnings. *Journal of personality*, 64, 899-922.
- Berry, J. W. (1991). Understanding and managing multiculturalism. *Psychology and Developing Societies*, 3, 17-49.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ical: An International Review*, 46(1), 5-68.

- Berry, J. W., Poortinga, Y. H., Segall, M. H., & Dasen, P. R. (2002). Cross-cultural psychology-research and application (2nd e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ry, J. W. (2005).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p. 17-38 in acculturation, edited by Kevin M. Chun, Pamela Balls Organista and Gerardo Matin, Washington, DC: Decade of Behavior.
- Berry, J. W., Phinney, J. S., Sam, D. L., Vedder, P. (2006). Immigrant youth : acculturation, identity,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55(3), 302-332.
- Beck, A. T., Steer, R. A., & Brown, G. K., (1996). Manual for the beck depression inventory-II.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rop.
- Cohen, J. (1992). A power primer. *Psychological Bulletin*, 112, 155-159.
- Cohen, S., & Wills, T. A. (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 Chang, E., & DeSimone, S. (2001). The influence of hope on appraisals, coping, and dysphoria: A test of hope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2), 117-129.
- Hoschl, C., Rinz, P., Casas, M., Musalek, M., Gaebel, W., & Vavrusova, L. (2008). Symposium: The impact of migration on mental health and mental illness. *European Psychiatry*, 23, 42.
-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5, 1183-1192.
- Hu, L. T. & Bentler, P. M. (1995). Evaluating model fit. In R. H. Hoyle (Ed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76-9). Newbury Park, CA: Sage.
- Karen p. & Louk1 H. (1996). Personal adjustment to acculturative transitions: The Turkish espeni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1(2), 131-144.
- Lee, C. S., Park, J. Y., & Lee, J. M. (2013). Relative levels of hope and their relationship with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immigrant women. *International Journal of Digital Content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7(13), 343-350.

- Sandhu, D. S. & Asrabadi, B. R. (1998).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a practical approach to stress management. In C. P. Zalaquett & R. J. Wood (Eds.), *Evaluating stress: A book of resources*, Vol. 2 (pp. 1-33). Lanham, MD: The Scarecrow Press.
- Sobel, M. E. (1982). Asymptotic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s model, In S. Leinhardt(Ed.). *Sociological methodology*(pp. 290-312). San Francisco, LA: Jossey-Bass
- Snyder, C. (1994). Hope and optimism. *Encyclopedia of Human Behavior*, 2, 535-542.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You can get there from here*. San Francisco, LA: Free Press.
- Snyder, C. R. (2000). The past possible future of hop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9, 206-208.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 and applications*. Orlando, FL: Academic Press.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Holleran, S., & Irving, L., Sigmon, S.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Snyder, C. R., Irving, L. M., & Anderson, J. (1991). Hope and health. In C. R. Snyder & D. R. Forsyth(Eds.), *Handbook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Elmsford. NY: Pergamon Press.
- Wills, T. A., McNamara, G., Vaccaro, D., & Hirky, A. E. (1996). Escalated substance use: A longitudinal grouping analysis from early to middle adolescenc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2), 166-18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56-75, Newbury Park, CA: Sage.

*Received 10 August 2014; Revised 10 September 2014; Accepted 20 September 2014*

##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Hyun Hee Yu<sup>a</sup> · Chang Seek Lee<sup>a</sup>

<sup>a</sup>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Hanseo University, 46  
Hanseo-1ro, Haemi-myeon, Seosan 356-706,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in Chungcheongnam-do,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580 immigrant women for marriage and were analys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as a positively direct effect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But hope had negatively direct effect o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Also, the study verified that there was the mediating effect of hope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on of immigrant women. Implications for the suggestions to enhance the hope level of immigrant women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Immigrant women,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Hope,  
Mediating effect



Hyun Hee Yu is a doctorate course student of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in Hanseo University. She interes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 education. Address: (356-706), 46 Hanseo-1ro, Haemi-myeon, Seosan, Korea. e-mail) 123hyunhee@hanmail.net



Chang Seek Lee is a professor of department of child and adolescent welfare in Hanseo University. He interests in multicultural families, adolescent welfare and child education. Address: (356-706), 46 Hanseo-1ro, Haemi-myeon, Seosan, Korea. e-mail) hanseo.ac.kr